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庚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趙大濟
발행처: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번3
골든오아시스빌 4층 411호
TEL:(051)245-7551~3, FAX:245-7550
인쇄처:釜山日報社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5-20 동복빌딩 504호
T:(02)783-0071~2 F:(02)783-0073



사상 첫 장타 경연 “신바람”

9월24일 입장식... 참가상 1위 제32회·2위 제31회·3위 제14회

제32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2000년 9월24일 경남고 운동장).



용마가족의 가을 빅이벤트인 동창회장기 쟁탈 제32회 기별야구대회(2000부산시리즈)가 본부동창회 주최로 9월24일 막을 올렸다. 올해 대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고운동장에서 입장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21일 결승전까지 4주간(토·일요일)의 대장정을 펼친다.

이날 입장식에는 동문·가족 300여 명이 참석, 대회사상 최초로 장타대를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YB-OB전 등을 펼쳐 뜨거운 응원과 함께 유대를 강화했다. 조대제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은 대회사를 통해 “기별야구대회는 용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전통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의 기상과 잠재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기별야구대회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입장식에 이어 오전 11시 장타대회가 대회사상 처음으로 펼쳐져 허섭동문(10회) 등 17명이 각각 장타를 날려 특별상을 수상했다. 장타대회는 선수출신을 제외한 모든 동문이 선배순으로 벌였다. 장타대회가 끝난 오전 11시30분부터 제1회부터 제18회까지 연합A·B팀 구분없이 두 팀으로 나눠 번외경기로 5회전까지 격

단일팀 경우 7회전...연장시 9회까지
핸디 2~3회 1점-8~9회 4점 등
각 팀 경기 1시간 전 대기해야

돌했다. 이 경기에서 최우수투수상은 허섭(10회), 우수투수상은 이효근(14회), 인기상은 이창대동문(12회)이 각각 받았다.

또 YB팀(모교 야구선수단)과 OB팀(경야회 회원)의 특별전이 펼쳐져 YB팀이 5대 1로 승리했다.

이날 입장식의 최다참가상은 제32회가, 2위는 제31회가, 3위는 제14회가 각각 수상했다.

제19회부터 단일팀으로 출전한 올해 대회는 오는 9월30일 경남고에서 제35회-제41회, 경남중에서 제36회-제44회(각각 오후 1시30분)가 격돌하는 것을 시작으로 열전행진에 들어간다.

경기규칙에 따르면 토너먼트 낙다운제로 운영되는 경기는 단일팀 경우 7회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전 경우 9회까지로 하며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추첨을 한다. 핸디는 2~3회 1

점·4~5회 2점·6~7회 3점·8~9회 4점 등으로 치른다.

타격상 대상은 준준결 진출 10타석 이상이며 부정선수 발견시는 게임이 몰수된다. 또 용구는 팀별로 자체 조달해야 하고 스파이크는 절대 신을 수 없다.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권오현 김근준 정동식 정수봉(이상 1회) 김영삼 류영렬 송두호(이상 3회) 정상찬(4회) 우명수 주범국(이상 5회) 정소영(6회)

△대회사=조대제 본부회장
△운영위원장=이창대 경총회장(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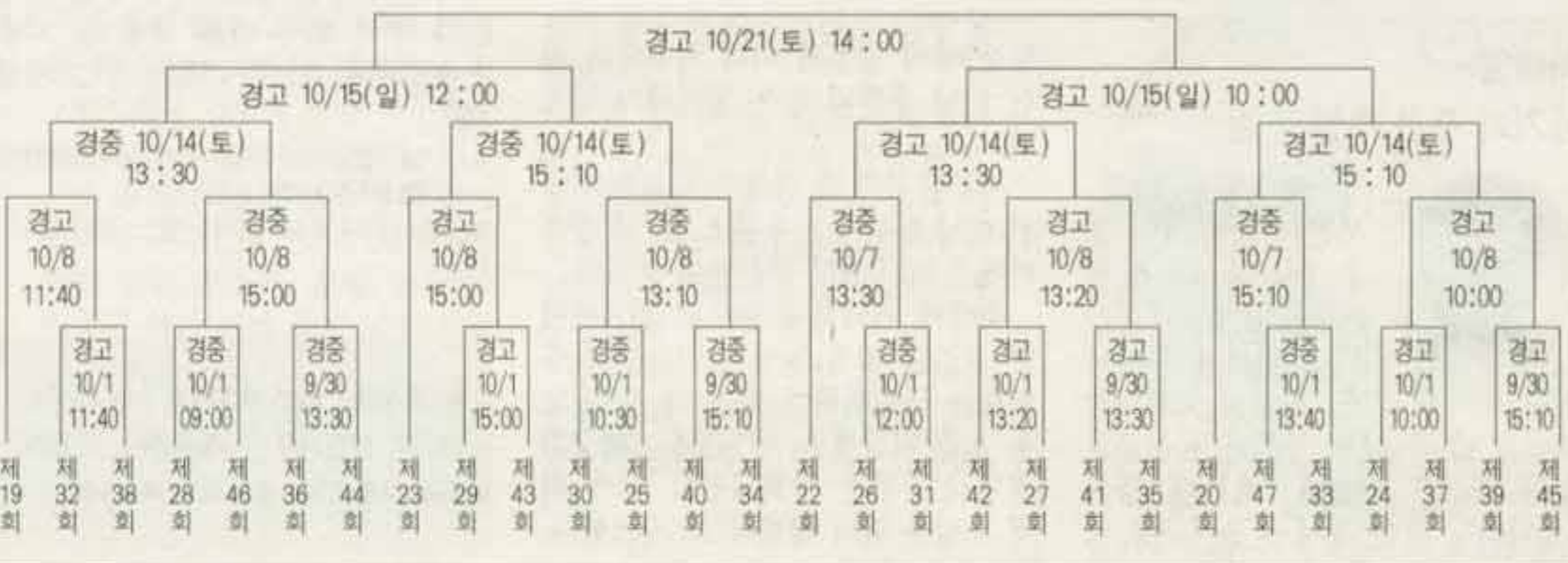
△운영위원=각 동교회 총무
△경기위원장=이충원 경야회장(29회)

△경기위원=경야회 회원
△의무위원=손부흥(15회) 박가식(17회).

YB팀, OB팀에 5-1 낙승 제35-41회·제36-44회 첫 격돌

회장기쟁탈 제32회 기별야구대회(2000부산) 대진표

단일팀(전 게임 7회전, 19회~47회 출전 희망팀 구성)



동창회장배 제3회 龍馬 골프대회

- 일 시 : 2000. 10. 30(月) 09:00
- 장 소 : 동래 베네스트 G.C.
- 경기부문 : 단체전(기별대항)·개인전
※ 번외경기 : 장타대회
- 예 약 : 40개조(160명) 선착순
※ 10.16.(月) 12時 마감

- 참가신청
※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245-7551 FAX. 245-7550
- ※ 옥윤석
TEL. 263-2101. 011-599-2668

기타 자세한 대회요강은 유인물로 개별통지하겠습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OHNPAX PHOTO-TECH CO., LTD.

슬라이드·핵·네가·와이드·줌·전문·행사소

작품사진전문

대표이사 朴龍一(16회)

부산 중구 중앙동 2가8 (주택은행 부산지점 옆)
TEL. (051)245-1537~8, 1213-4
FAX. (051)245-1210

시평



김경희 제9회·재경동창회 고문 (주)용마공업 대표이사

동창회·동기회 조직관리 이렇게

겸손한 태도와 부지런함이 뒷받침된 결단 있는 태도가 동기회 내지는 지역동창회를 활성화시킨다. 점잖은(?) 동기회는 껍데기는 있되 속은 텅빈 조직이 되고 만다.

눈치와 체면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쉽게 되살아난다. 임원들의 책임이 그래서 크다.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된다. 흔히들 동창회의 경우 '문제가 있다' '묘안'이 나올 때까지 착수를 보류하고 기다리자면서 유익한 의견을 거부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유형 중 가장 힘들었던 장벽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능성에 반대하는 사례를 기억한다. '실패하면 어쩌지'하는 자신없는 사고방식과 소극적인 태도야말로 동창회 사업을 철저히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가령 한 동문의 기막힌 아이디어를 '어딘가 잘못이 있을 것 같다'는 지레 짐작으로 제안을 묵살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경험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 조용한 동창회로 전락시키는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예써 설명하는 동창회 심부름꾼을 향해 '치아라 술이나 목자'식의

적인 해독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할 선도그림의 부정적으로 내뱉은 발언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해도해도 안되더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출발하

목표가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막연한 동창회 사업만을 구상한다면 출발부터 빛나기게 마련이다. 비록 작은 조직이나 소속된 동문들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챙겨주는 임원이 되어야 한다. 어이없게도 동기회나 동창회 총회조차 나오지 않는 임원들이 다시는 없기를 기대해 보자.

결국 선임된 새 집행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조직과역이다. 구성원인 동문상호간의 다양한 관계를 모르면 낭패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면 끝장이다. 동문각지의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Inner Motivation)이 중요하다.

편견과 선입관은 금물이다.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결재하는 기분만으로 동창회를 호령하고 싶어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겸손히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맘을 홀리자. 틀림없이 광영은 찾아올 것이다.

“ 적극적인 집행부는 활성화 견인차 냉소·방관·'고춧가루 뿌리기' 삼가야 구성원 다양성 파악해 전방위노력 ”

로 대화 분위기를 박살내는 풍토야말로 우리 동창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제일의 공적이다.

조금 출세한, 얼마 전까지도 동기회 또는 동창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조용'한 태도 또한 차체에 걸고 넘어가자. 지난 날의 경험을 토대로 동기회 또는 동창회 자문역을 자처하는 이들 소위 리더그림의 무책임 내지는 비판적인 언행이 주는 치명

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해선 안된다. 비록 실패했는지언정 그 경험은 훌륭한 것이다. 새 출발의 기치를 들고 나서야 할 용마들의 생활기술(Arts of Life)이 더욱 다듬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히 도전하자.

그동안 다소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를 옥되게 했던 잔재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새로운 걸서를 확립하자.

박희태(11회)

한나라당 부총재 선임



박희태동문(11회·사진)은 최근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부총재로 선출됐다. "용마가족의 성원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박동문은 제13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4선의 관록을 자랑하고 있다.

박동문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후 정계에 진출, 민정당과 민주당에서 헌정사상 최장수 명대변인의 기록을 세웠고 법무부장관·국회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신한국당 원내총무·한나라당 직선 원내총무를 역임했다.

박동문은 이번 부총재 경선에서 차기집권을 위해 △당내 다양성 집약 △계파간 갈등을 화합으로 해소하는 '조정과 통합의 기수'론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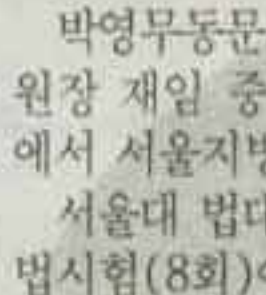
김대현(18회)

부산시 의사회 회장 피선

김대현동문(18회·신한방사선과의 원장·사진)은 9월15일 부산시 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박영무(15회)

서울지법원장 영전



박영무동문(15회·사진)은 행정법원장 재임 중 최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서울지법법원장으로 영전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문은 사법시험(8회)에 합격,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부산과 서울지법 등 판사·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부산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지법 서부지원장·창원지법 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후배 동문들의 격려와 성원을 보답하기 위해 법관의 명예를 드높이고 용마의 긍지를 잃지 않겠습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김동문은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 겸 의쟁투위원장을 맡아왔다. 은후하고 소탈한 성품의 김동문은 의쟁투 경력과 과감성·추진력·결단력이 높이 평가되고, 외래환자들에게 솔직한 의료소견을 밝혀주고 있어 안 밖으로 신임이 두텁다.

인제대의대 등 외래교수로 출강 중이다.

허태열(18회)

동기회 주관 후원의 밤



허태열동문(18회·사진)은 8월14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42층 피코크 룸에서 열린 동기회 주관 '허태열 국회의원 후원의 밤'에 참석, 수많은 동문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제16대 총선(한나라당 부산 강서·북을지구당 위

원장)에서 당선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날 후원의 밤은 동기회가 넘쳤다. 서부원 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원호 동기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축배와 저녁식사 등으로 화기에 애한 시간을 가진 일행은 허동문이 신뢰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데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고, 허동문도 "깨끗한 정치·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현(1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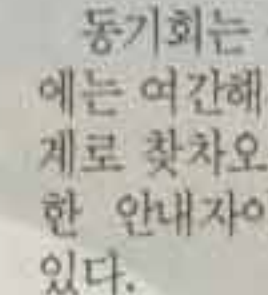
동기회 주관 후원의 밤



김대현동문(18회·사진)은 8월14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42층 피코크 룸에서 열린 동기회 주관 '허태열 국회의원 후원의 밤'에 참석, 수많은 동문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제16대 총선(한나라당 부산 강서·북을지구당 위

황성진(19회)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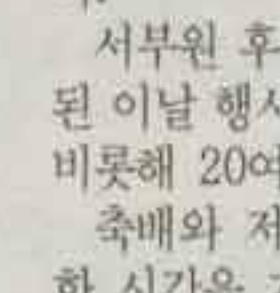
황성진동문(19회·사진)은 20여년간의 검사생활을 끝내고 변호사로 새 출발, 지난 8월16일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황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15회)에 합격했고 공군법무관을 거쳐 부산과 서울지검 등 검사·밀양지청장·대검 중수부 각 과장·서울지검 부장검사·부산 서울지검 등 1~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황동문은 "평소 격려·성원해준 용마가족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동문·가족 등을 위해 민사 형사 회사 해운 국제 등 각종 소송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18회)

동기회 주관 후원의 밤



김대현동문(18회·사진)은 8월14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42층 피코크 룸에서 열린 동기회 주관 '허태열 국회의원 후원의 밤'에 참석, 수많은 동문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제16대 총선(한나라당 부산 강서·북을지구당 위

김대현(18회)

동기회 주관 후원의 밤



김대현동문(18회·사진)은 8월14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42층 피코크 룸에서 열린 동기회 주관 '허태열 국회의원 후원의 밤'에 참석, 수많은 동문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제16대 총선(한나라당 부산 강서·북을지구당 위

원장)에서 당선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날 후원의 밤은 동기회가 넘쳤다. 서부원 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원호 동기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축배와 저녁식사 등으로 화기에 애한 시간을 가진 일행은 허동문이 신뢰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데 뜻을 모을 것을 다짐했고, 허동문도 "깨끗한 정치·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동문은 "평소 격려·성원해준 용마가족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동문·가족 등을 위해 민사 형사 회사 해운 국제 등 각종 소송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실: 부산 서구 부영동 1가 66 부산KINEX 원 앞 앞문(사)나 빌딩 5층.
*전화: (051)245-8001 팩스 (051)245-8003

(바로잡음) 회보 제318호 4면 제10회 동기회 산행기사 중 정중환은 '정중만'으로 바로 잡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00년 회원 총명부 출간! 정보가 보인다

국내외 동문현황·직능별 분류·
화보·은사주소록 등 다양한 기획 편집
각 동기회별 단체·개별 구입 "쇄도"

경남중고동창회 편찬위원회 刊



연극·노래·불꽃놀이에 우정 익고...

25회 동문-가족 밀양 '우리극연구소'서 문화체험

뛰어난 연출극작가
이윤택동문 운영

모교 교장 역할
이희문은사 고가방문

매주 토·일 공연
전국서 관람객 다녀가

제25회동기회의 동문·가족들이 한여름밤 시골에서 연극과 노래와 캠페이어 등으로 펼쳐진 '문화체험' 어울마당에 심취했다.

어울마당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글게 한 곳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우리극연구소'.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 연극계에서도 각광을 받고있는 연출극작가인 이윤택동문이 운영하고 있다.

조광도회장을 비롯한 부산 서울 마산 창원 등에서 모인 80여 동문·가족들은 8월19일 저녁 우리극연구소의 객석에 앉아 1박2일의 문화체험막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대북의 감동적인 타고가 터지자 3부로 구성된 행사의 막이 올랐

다.

1부는 사물놀이·연극 '햄릿'공연·도술가의 광란(?)하는 록밴드 연주·축포발사로, 2부는 동문·가족노래자랑으로, 3부는 캠페이어로 각각 연출됐다. 박수와 환호의 연속이었다. 특히 캠페이어 불길을 에워싸고 제창된 교가가 '다시 용마의 영광을' 예고하고 있었다.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시킨 이번 문화체험은 동기회행사 중 '뛰어나고

소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들은 이날 모교 교장을 역임한 이곳 퇴로출신 이희문은사(6회)를 초빙해 사제의 정을 듬뿍 나눴다. 뒷날은 은사의 고택과 유서깊은 정자를 둘러보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우리극연구소는 매주 토·일요일마다 연극공연을 하고 있는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찾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광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이윤택동문은 2002년 부산아시아 게임 개·폐회식 시나리오 작가로 선정돼 준비에 몹시 바쁘다.



제25회 동문·가족들이 이윤택동문이 운영하는 '우리극연구소'에서 연극을 관람하기 앞서 이동문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9월6일 골든뷰페에서 열린 경총회 3차 정기총회.

경총회 3차 정기총회

"동창회 발전 촉매제로 헌신하자"결의

이창대(12회) 신임회장 선출

본부동창회 산하 각 동기회 총무들의 친목단체인 총무단협의회(약칭 경총회)는 9월6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 14층 '골든뷰페'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대동문(12회·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옥윤석간사장(16회)의 사회로 진행, 회장의 인사말과 조대재 본부회장(7회)의 격려사, 99년 주요활동보고, 결산보고, 임원개선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창대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고 있는 경총회는 '숨은 일꾼'들의 결집체"라며 "경총회의 헌신이 동창회 발전의 촉매제라는 것을 명심해 더욱 분발하자"고 말했다.

총회는 임원개선 후 다년간 회의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수현회장과 옥간사장의 노고를 박수로 치하했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총회는 △회의 활성화 촉진 △본부와의 협력 강화 △본부의 각종 행사 등 적극 지원 △각 동기회 미수금 조속 정리 등에 강도 높은 활동을 펴기로 했다.

본부 '2000년 회원총명부' 출간

개별명단·직능별
해외지역 동문 주소록
각종 자료·화보 등 수록



본부동창회 '2000년 회원 총명부(사진)'가 2년여의 작업 끝에 지난 8월 하순 발간됐다. 국배판 1,006쪽·부산일보출판국 간.

'2000년 회원 총명부'는 그동안 각 동기회별로 정리한 개별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이를 직능별로 분류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 해외지역동창회의 동문 주소록과 은사주소록, 국내 지역동창회의 임원 주소록, 모임 현황 및 야구부 역대 전적 등도 일일이 확인·수정했다.

5년마다 발간되는 총명부이기 때문에 개별 명단은 물론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시간과 애

로가 겹쳐 계획보다 다소 늦게 발간됐다.

이번 총명부도 많은 동문들의 광고협찬과 각 동기회 회장 및 총무, 편집위원 등의 헌신 결과 알찬 내용으로 꾸며졌다. 용마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총명부의 화보·명단·각종 자료 등을 통해 동창회의 5년간 발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2회 경남 각 지역회 통합

막강파워 '경남회' 출범

제12회동기회 경남 일원 각 지역회가 '경남회'로 통합, 잠재력을 과시하며 출범했다.

제12회동기회 마산·창원지역회를 비롯한 진주 거제 의령 밀양 등 경남 일원 각 지역회 대표단은 8월2일 마

산노인병원(원장 안영규동문) 병원장실에서 '제12회동기회 경남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남회'발족은 각 지역회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켜 동문유대 강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총회는 초대 회장에 김장욱 거제 회장(거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사진), 총무에 박정호동문(전 마산지역공사 소장)을 선임했다. 또 고문에 남기용동문(김해 문교산업 대표)을 추대했다.

총회에는 부산의 본부동기회 임원 다수를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참석, '경남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동문들은 마산노인병원을 연 안동문이 마련한 뒤풀이 행사를 즐기고 헤어졌다.

재경12회 올해 첫 이사회

제12회재경동기회는 7월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역삼동 '삼사록(대표 서영태동문)'에서 이규만회장 주재로 새 천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만나면 정겨움이 넘친다"며 "동기회 발전을 위해 이사가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회장은 올해 상반기 행사 등을 정리한 회의자료를 불참한 이사와 일반 동기생들에게 우송, 동기회의 '돌아가는 사정'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창원사이클경륜장 개장식에 동문 초청"

제27회 월례회 통해 공민배시장 메시지 전달

제27회동기회(용마 이철) 8월 월례회가 8월22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유원뷰페'에서 동문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두찬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창원에서 김성주(창원시청 기획실) 김일리·이천식동문이, 국제철인

3중경기에 출전했던 박치호동문이 참석했다. 또 미국서 일시 귀국한 신재욱·서용서 부산으로 옮긴 외환은행 지점장인 이종찬·김해세무서 과장인 김안석동문과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김대룡 등 여러 동문들도 얼굴을 보여 기쁨이 넘쳤다.

특히 김성주 창원지역회회장은 "동기생인 공민배창원시장이 '오는 11월24일 창원 사이클경륜장 개장식 때 동기생들을 초청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회장 자신은 시드니 올림픽 사이클 경기 KBS 중계방송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제8회동기회 임원·이사 명단

본부동창회 부회장	고 문	수석부회장	총 무	김시경	배기현	이상목	장길영	재경동기회 회장
박동열	김갑득	김봉길	도은영	김을환(영도)	배덕수	이성호	장희준	전영배
문 국	공상태			김을환(감만)	상기종	이상식	정금출	
본부동창회 이사	노선태	부회장	재 무	김재범	서석동	이양희	정은근	재경동기회 산우회 회장
이윤조	박동열	백옥현	정인호	김중운	서진근	이장성	조봉석	김영철
이춘기	이윤조	심재홍		김택규	성해원	이창우	조성래	
장혁표	이춘기	이태호	이 사	목용성	신경화	이희욱	조대준	재경동기회 잔디회 회장
	장혁표		구본섭	문 국	심재두	이호수	최경태	이창근
		감 사	김문각	문동현	안종렬	이호원	최낙병	
	회 장	김상근	김상곤	박세창	엄덕량	임금식	최윤식	재경동기회 팔선회 회장
	김정곤	안병권	김상식	박영우	우동천	임을수		이유환

15회 지역·직능회 활발

사하회 월례회·새 회원 환영회

사하회(회장 김창규) = 7월25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숲불굴비'에서 월례회를 열고 새 회원이 된 김판열동문 환영회를 곁들였다.

이날 모임에는 모두 18명의 동문이 참석. 김회장 손부홍 한해수동문의 특찬금으로 스페셜 쇼 즐김.

우승 김창규·준우승 박찬식

일요회(회장 신홍규) = 7월23일 오전 통도CC에서 월례대회. 13명 참석. 우승 김창규·준우승 박찬식·메달리스트 김항영·3위 이종희·니컬리스트 손부홍·통리스트 한해수·행운상 정창환.

10년 맛이 여름캠프 대성황

제16회, 승정해수욕장서

제16회동기회는 7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부산 승정해수욕장에서 여름캠프(사진)를 실시했다.

이백제회장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태풍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雄志 드높이 펼치리라

우리 4회 동기생들은 지난 5월3일 졸업 50주년을 맞았다. 부산을 비롯한 서울 등지의 친구들 40여 명이 해인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회포를 풀었다.

졸업할 때 230여명이던 친구들이 비명에 요절했고 난리통에 행방불명 되었으며 이민을 갔거나 알아없는 바람에 몇십명 살아 남아 있다. 고회를 남긴 늙은이들이 이 정도 모인 것도 대견스러운 일. 회장단이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자 꽃병에 정표가 되는 글귀를 새겨달라는 제의가 왔다. 고심 끝에 '용마유천(龍馬遊天)'을 택했다.

'용마가 하늘에서 노닐다'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백발용마 운상유천(白鬚龍馬 雲上遊天)'으로 할까 했다.

'흰 수염의 늙은 용마가 구름 위에서 노닐다'는 뜻

졸업 50주년 기념

꽃병의 '龍馬遊天'은

이렇게 새겨졌다

박흥기동문(회) 글씨 설명

이다. 그러나 꽃병의 여백이 좁아 '용마유천(龍馬遊天)'으로 줄였다.

용마는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휘돌며 용지를 퍼왔다. 장년기의 용마들은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들면서 대지(大志)를 뽐내었다. 용마가는 곳에 비바람이 따랐고 뇌성이 쳤으나 백수(百獸)가 숨을 죽였으니 가히 용마무쌍이라 하겠다.

그런데 늙은 용마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노닐 것이냐? 이 화두(話頭)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날자, 하늘로! 용은 끝내 승천을 해야 하지 않는가. 성공한 이는 여의주(如意珠)를 물고, 여의주가 없는 이는 담배라도 한 대 피워물고 구름 위 더 넓은 중천에서 놀자! 그러면서 옛동지인 구덕정사(九德精舍)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용마들에게 정기를 불어넣어 주자! 용마만세! 용마만세!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우정과 회포를 풀었다. 이 여름캠프는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개최,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캠프에 참석한 부산을 비롯한 서울 등 동문·가족들은 각종 활어회의 진미에 반했다.

6월인데도 천지는 얼음 속에...

일산회 백두산 정복

제21회동기회 일산회 용마들이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에 우뚝서서 용마정신을 심었다.

일산회 송재영회장 등 회원 14명은 6월2일 제100차 산행기념으로 백두산천지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국여행을 경험했다.

이들은 4년 전부터 '백두산정복계획'을 세워 적립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4박5일 일정을 부담없이 마칠 수 있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무쌍한 정상 날씨 때문에 과연 천지와 봉우리들을 상봉할 수 있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첫 번째 시도에 쾌청한 날씨 덕분에 영원히 잊지 못할 천지 상봉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했다.

6월 초인데도 천지는 아직 얼음이 녹지않은 장관이었다.

일산회는 내년 봄에는 금강산 등정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일산회 용마가족들.

장대비 속 공룡능선

사상 최악의 도전

이철산우회 118회 산행

용마이철산우회는 8월20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 장대비를 뚫고 천성산(811m) 공룡능선 중주 제118차 산행을 했다.

장기남산행대장 등 11명이 참가한 이날 산행은 당초 성불암쪽 천성산코스를 택했으나 여러 '매파'들이 공룡능선을 고집하는 바람에 약천후에 시달렸던 것. 일행은 약천고투 끝에 집복재(천성산 정상 및 십자갈림길)에 도착해 점심을 먹으려고 했으나 비바람이 심해 하산하기 시작했다.

계곡물이 불어나 실족사고가 잦아졌다. 조인용동문은 젖은 바위에 미끄러져 세바퀴나 굴러 떨어졌다. 뒷날 직장에도 출근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점심은 3시경 성불암 올라가는 입구서 선 채로 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마쳤다. 무척 힘든 하루였으나 도전력을 길러주는 데는 큰 힘이 됐다.

다음 글은 미국의 북가주에서 의료활동을 펴고 있는 박세록동문(10회)이 연초 중국의 단둥에 '단둥기독병원'을 설립했고 'SAM(Spiritual Awakening Mission) 의료복지재단'을 이끌면서 협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한 글이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편집자)

단둥기독병원

사역에 대하여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더 경직되기만 하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크게 변화되게 해 주셨습니다. 신의주 맞은편에 위치한 중국 단둥에 CMWM 단둥기독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작업

"성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선 100명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한방과 새로 열리는 양의학이 동시에 봉사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평양제3인민병원 개원과 나진·선봉병원 의료봉사 등 북한 내부 사역에 치중하던 샘(SAM) 의료복지재단은 이제 새로운 지역을 열고 개척하는 비전으로 신의주 지역을 돕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CMWM단둥기독병원은 외부적으로는 그 지역의 중국 사람과 조선족들에게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신의주 사역을 하는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두만강변에도 의료 진료실을 가지고 고려인, 조선족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현지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러시아 우스리스크와 중국 훈춘에도 진료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미국 최대의 구호단체인 프로젝트 큐어(Project Cure), 후방지원센터인 샌프란시스코의 기독복지센터와 연결이 되어 모든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샘(SAM)의료복지재단과 CMWM단둥기독병원 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서 눈물의 기도와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 주실 때마다 같이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함께 뭉쳐 우리 동족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고통을 덜어 주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시켜 나감으로써 북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또 국경지대의 조선족, 고려족, 탈북자 등 200여만명을 복음화하여 잃어버린 북방의 고토를 복음으로 회복하려는 '복음으로 새 고구려 건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세록

샘(SAM)의료복지재단 대표



社團 慶南社會振興研修院
法人 慶南社會振興研修院
kyung Nam Social Promotion Training Institute

노동부지정교육훈련/청소년수련활동기관

부대 시설 현황

- 대강당(600명) • 중강당(250명) • 분임토의실(50명/16개소) • 식당(900명)
- 숙소(900명) • 잔디구장(축구, 배구, 농구, 축구 등) • 탁구장 • 캠프화이어장
- 야외 수영장(350명) • 극기훈련장 • Survival Game장 • 자갈산 등산로
- 매점 • 당구장 • 노래방시설 등 • 대, 중, 소형 주차장



企劃理事 鄭承洙(1941)(비.정동양회 사무국장)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99-2번지
TEL 055-574-1801~4 055-266-7009(昌城) FAX 055-574-1805

- 사회단체지도자연수
- 기업체연수
- 공직자연수
- 청소년수련활동

風水地理

풍수사상의 실체는 우주만물의 기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天氣와 地氣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원천 학문이다.

- 묘지의 선정 및 길흉화복 감정
- 주택, 빌딩, 공장터 감정

※ 理論과 實務을 겸한 30년 30년

김준모(11회)

서울 종로구 신교동 40-1 도암빌라 202호
자택 : 02-738-0201
H·P : 016-287-6750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도읍시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 업체소개 • 주요 취급품목 • 대표자명(사진 포함)
• 연락처 •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 경남중고동창회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제8회재경동기회 각 클럽 '결실'대비 워밍업

제8회재경동기회(회장 전영배)의 각 클럽은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가을활동을 시작했다.

9월 우승 전영배·권정옥

잔디회(회장 이창근)=가을맞이 첫 행사인 제93회 월례대회 9월7일 오전 9시 안성CC에서 거행. 앞서 8월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92회 월례회에는 17명이 참석. 남자 우승 전영배(81타 이본)·준우승 김태규(86타)·3등 추경석(90타)·행운상 김호석동문(91타), 여자 우승 권정옥·행운상 양준제씨.

가을맞이 첫 대국 일품기원서

팔선회(회장 이유환)=9월2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가을맞이 첫 모임인 9월 월례회. 앞서 8월5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8월모임. 이창근 신현주 윤태영 이유환 이준근 김진석동문 등 참석.

9월중 설악산 다시 도전키로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만나 산행. 9월 중 다시 설악산 도전키로(연락 02-448-5143 김영철).

재경동창회산악회보

'용마산악회' 6호 발간



재경동창회 용마산악회의 회보 '龍馬山岳會' 제6호가 7월22일자 로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정일성회장(16회·성지상사 대표)의 권두언(산상 일기) '등반을 통하여 뉴질랜드를 밟자'를 비롯해 제51차 정기산행(진천 만리산-2월27일)·제7회 등산의 날(서울 북한산-4월18일)·제53차 정기산행(강원 설악산-6월11~12일) 등 산악회 행사, 제15회 보름산우회 경부합동산행(경북 문경 대야산-5월20~21일) 등 동기기회 산악회 소식이 실려 있다.

또 손영목(14회·설악산)·정홍(15회·대청봉)·손재봉(16회·만리산)·신용도동문(27회·설악산) 등의 산행기, 윤원호동문(27회)의 산행시,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 제1회 등산대회(8월11일 부산 승학산)등도 실려 있다.

뉴질랜드서도 정기총회

이상수부회장 교민신문과의 인터뷰 대서특필

동창회 사무실 개소

뉴질랜드지역동창회는 8월25일 오후 6시30분 오클랜드의 '하바나 레스토랑'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차준호회장(18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김승덕총무(28회)의 사회로 진행돼 지난 1년간 사업 및 결산보고를 승인했다.

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동안 동문·가족들의 화합과 결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차회장은 "동창회 사무실(09

-522-5456) 개소에 적극 협조한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99. 12. 3시행)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곳 동창회는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문·가족들이 격월마다 정례회에서 만나 우의와 친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이상수부회장(23회·이곳 한인무역협회 회장)은 교민신문인 '뉴질랜드 타임지'와 무역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됐다. 이 부회장은 2년 전 북한을 다녀온 바 있다.



8월29일 부산 코모도호텔 회락장에서 열린 제11회동기기회 정기총회.

"모범적 동기기회 거듭 나기"

제11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김병기 선출



제11회동기기회는 8월29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호텔 회락장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병기 동문(남아제관(주)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 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신임회장 선출을 마치고,

새 집행부 구성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김병기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모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동기기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앞으로 본부동창회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모범적인 동기기회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미국 북가주 용마가족들이 카만치호수에서 '뱃놀이·남시대회'를 마치고 선착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국 북가주지역 용마가족들 카만치호수서 뱃놀이·남시대회

미국 북가주의 용마가족들이 뱃놀이와 남시대회로 고달픈 이민생활을 잠시나마 달랬다.

조직활성화에 남달리 헌신하고 있는 조동훈회장(9회)이 이끄는 미국 북가주지역동창회는 8월26일 도심에서 150km 떨어진 카만치 호수에서 뱃놀이·야유회를 펼쳤다.

이날 모임에는 이곳 동창회의 정식적 지주인 이상진 박영돈(이상 3회) 두 선배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두 척의 배를 빌려 타고 시원한 여름 호수의 물살을 가르며 온갖 잡념과 시름을 씻어냈고 남시대회를 벌여 마음속에 청량제를 듬뿍 불어 넣었다.

마산·창원지역회 골프모임 잔디회 결성

10월 회장대대회 계획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8월18일 경남 부곡CC에서 골프동호인 모임인 '잔디회' 주관 제3회 동문친선대회를 열었다.

앞서 잔디회는 지난 6월 초순 창립

총회를 개최, 고문에 이기돈동문(10회·동양화재해상보험 마산지사 고문역)을 추대했고, 회장에 김영현동문(15회·성운산업 대표), 총무에 이상열동문(23회·파파이스 신마산점 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잔디회 창립기념 제1회 대회는 6월23일 창원CC에서, 제2회 대회는 7월23일 부곡CC에서 각각 열렸다.

한편 마창회는 오는 10월 회장기 생활 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골프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잔디회' 회원들의 다양한 모습.

"오, 후지산! 300..."

제2회 99한일장애인등반대회 참가기

이상주

제22회·피정병원병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일 장애인 등반대회에 아내와 한국측 자문 의사로 참가하게 돼 1999년 8월 6일부터 그 유명한 일본의 후지산(富士山·3776m)에 오르는 기회를 가졌다. 집사람의 미숙한 등산경험으로 후지산을 등반하는 것에 다소 두려움이 따랐다.

특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했으나 튼튼한 비옷과 손전등, 등산화 등을 덮어주는 방수포 등을 빼뜨려 고생이 겹쳤다.

김해국제공항 청사 바로 옆에서 이날 출정식을 마친 후 12시 50분 이륙한 비행기로 1시간 걸려 나고야공항에 도착했다. 환영식에 이어 시즈오카로 향하는 관광버스가 도메이고속도로를 질주한 지 약5시간 후인 6시30분 후지산 5부 능선인 오합목(五合

目·1900m고지)에 도착, 식사를 했다.

저녁 8시20분 출발, 칠합목(七合目·해발2800m)에 밤11시20분경 도착해 휴식을 취한 후(약2시간 가량 잠을 청하기로 함) 7일 새벽2시경 후지산 정상을 향했다.

심한 비바람과 탈진상태로 일 본인 가이드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등반에 자신이 없는 악천후라며 하산을 종용하였으나 우리들과 장애인들은 꼭 등반하고 싶다고 해 결국 가이드가 양보했다. 30분 후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집사람에게는 계속 쉬다가 그만 나머지 일행과 하산하라고 해도 막무가내, 할 수 없이 집사람과 같이 비바람을 헤치고 등산의 고행은 시작되었다.

새벽 5시경 팔합목(八合目 강호옥·해발3400m)에 도달할 무렵 집사람이 심한 두통과 최면상태(수면)로 빠지기 시작했다. 2통의 산소공급을 시도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심한 추위와 진눈개비가 강풍과 함께



후지산 3000m고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상주동문(22회) 부인. 황량한 화산석과 벌어진 구름이 이채롭다.

퍼붓는 상황에서 300m(우회 3km)앞 후지산 정상을 남겨놓고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후지산 정상보다는 집사람이 더 소중한 것으로...

기념지팡이에 팔합목(八合目) 불도장을 찍는 것도 포기하고 우회하여 하산길을 재촉했는데 집사람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다.

70여명의 대회 참가자 중 15명만이 정상을 정복했다. 장애인 6명, 봉사요원 5명, 부산일보와 MBC기자 4명 등이 정상을 완주. 8월 10일 MBC 밤9시 뉴스와 8월 13일 아침 8시 1시간용 다큐멘터리 방영이 있었다. 개별인터뷰 등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 특

유의 특전을 톡톡히 누렸던 것이다. 특히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최경숙양은 중증(重症)소아마비환자로서 그날의 꽃이었다. 물론 하산길에는 더욱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하산길에는 작고 붉은 색소를 뿜어내는 자갈들이 즐비했고 빗물과 같이 토해내는 붉은 황토물이 등산화화를 완전 황토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신발 속에, 그것도 추운 날씨에, 황토물이 들어있어 표현할 수 없는 이상향이 나를 엄습하고 있었다.

아침 7시경 칠합목(七合目) 근처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심한 탈진상태와 허기를 견디기 어려워 산 속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비벼서 집사람과 내가 나누어 먹고는 지도 하나에 의지하여 다시 하산길을 재촉했다. 집사람과 단둘이서 이렇게 오래 데이트(?)를 한 경험이 없었기에 이번 기회가 오리라 부부의 금슬을 더욱 샘솟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6부 능선쯤에서 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날씨는 비를 뿌리기는 했지만 추위가 사라져서 걸기가 훨씬 수월했다. 이상하게도 소나무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스키 나무와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

루고 있었다. 길 옆에는 초롱꽃들이 제법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후지산의 말들이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는 광경이 나오면서부터 5부고지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누군가는 외로움이 쌓여 산이 된다고 말했다.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 그리도 높기에 3776m의 산봉우리도 쏟아 올랐는가.

후지산이여! 당신은 진정 무더위와 삶에 지친 우리를 깨우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후지산은 인간을 외롭고 초라하게 만드는 산이다.

인간을 지치게 하면서도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신비의 산이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난자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애태워 그리게 하는 산이다. 그래서 후지산의 말들은 고통의 냄새를 풍기는 지도 모른다.

이제 후지산의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간다. 1999년 8월6일 8월7일의 일들은 나의 뇌리에 추억의 장으로 넘어가려하고 있다.

만약 후일 내가 노인성치매에 걸려서 "후지300m"라고 소리칠 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집사람에게 남기면서...

어디서 무엇을

뉴질랜드지역동창회

김동재(12회)=3월3일 뉴질랜드에 정착. International Student Language Center에서 어학공부 중. 2/5 Powell St. Avondale. Auckland. 09-820-3467

박성규(13회)=1998년 8월에 정착. 153 Colwill Rd. Massey, Auckland. 09-832-8403

차준호(18회)=구명 순도. (이사)5 Amherst Pl. Albany, Auckland. 09-415-3020

안성길(21회)=사업자 홍콩왕래. 3 Ballini Rise West Harbour, Auckland. 09-416-9146

이상수(23회)=뉴질랜드 한인무역 협회 회장. 뉴질랜드동창회 부회장

권운현(23회)=Napier 거주. 06-845-0279

정동호(23회)=4 Gannet Point Rothsay Bay, Auckland. 09-478-0055

김수룡(25회)=범양상선 선장으로 승선중. (서울연락처)02-714-0668

장세영(27회)=15 Noel Williams St. Mairangi Bay, Auckland. 09-476-9036

이성욱(27회)=ChristChurch 거주. 03-357-9358

류한욱(27회)=오克蘭드 Massey 대학 수학생. 53Bushland Park Dr. Albany, Auckland. 09-415-6405

김승덕=재능교육 뉴질랜드 지점장. 09-522-5456. (자택)09-529-1662

김수현(36회)=(이사)Takapuna Golf Club 대표. 19A Oakpark Pl. West Harbour, Auckland. (직장)09-443-6644. (자택)09-416-5812

하병갑(37회)=Hyundai Driving School 경영. 09-836-1510

제정완(44회)=작년 6월 정착. 서울 마켓 경영. 38A Felton Mathew Ave. ST. John, Auckland. (직장)09-578-1367. (자택)09-377-7938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이기돈(10회)=동양화재해 상보험 (주) 마산지사 고문역. 055-250-1708

안영규(12회)=(개원)마산 노인병 원장. 055-242-7582

김강석(13회)=마산교육청 교육장. 055-252-8000

이경재(13회)=동진분석기술연구소 (주) 대표이사. 055-293-5440. 서울대학교 동창회 마산지 회장. ROTC 협회 마산지부장

김관(14회)=한국델몬트 후레쉬

프로듀서 마산지사장 전무이사. 055-295-9111

권영길(15회)=민주노동당 대표. 창원울지구당위원장. 055-285-5879

박소웅(16회)=(개업)신세계백화점 4층 고급 커피숍. 055-224-2525

김흥기(17회)=한중DCM(주) 대표 이사. 055-279-5400

이선형(17회)=전문건설공제조합 경남지사장. 055-238-5675

김광웅(18회)=창원노인병원 내과 장. 055-276-7755

김재근(19회)=동마산병원 원장. 055-290-5021

정승수(19회)=경남사회진흥연수원 이사 부임. 055-574-1801

문무영(19회)=(주)진영교역 대표. 055-648-2813

김진환(20회)=대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민형기(20회)=(주)동산 대표이사. 055-583-7670

김영철(21회)=창일정공(주) 부사장 부임. 055-293-6590

김우홍(22회)=한국프리벨사(주) 마산지사장. 055-221-9112

이상열(23회)=파파이스(주) 신마산점 대표. 055-295-8824

최호덕(23회)=(주)범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55-297-9771

김영기(23회)=동아산업(주) 대표 이사. 055-271-6312

장종철(23회)=마산보건소장. 055-245-4000

유창복(24회)=풍유농원 대표. 055-247-3737

김태홍(24회)=종로약국(인터내셔널호텔 1층) 대표. 055-282-6160

윤종유(25회)=외환은행 남양동 지점장. 055-261-2110

김정욱(26회)=가원건축설계사무소 장. 경남 창원시 도계동으로 이주. 055-238-1104

한중왕(27회)=경남약품(주) 감사. 055-251-2765

한중우(28회)=마산의료원 원장. 055-249-1009

하창완(29회)=하나은행 창원지점 장. 055-266-1151

김해근(30회)=김안과의원장(라식 전문) 055-298-1176

홍기철(31회)=신창원의원 원장. 055-284-2747

이종래(32회)=ING생명보험(주) 부지점장. (자택)055-263-5106

김종택(33회)=하나증권 마산지점

장. 055-252-3131

이해승(33회)=해병 중령. 055-549-5123

윤성부(34회)=(주)대명 상무이사. 055-286-2256

문세훈(35회)=서울차재공업(주) 이원보(35회)=해군 소령. 055-549-3095

노갑진(36회)=창신고교 교사. 055-298-2203

박영철(38회)=경향신문 경남지사. 055-283-1040. 경남도 중앙기 자실

박 건(39회)=한서병원 정형외과. 055-287-5411

김재혁(40회)=동마산병원 이비인 후과. 055-290-5029

안중욱(42회)=현대화재해 상보험 (주) 마산소장.

김언호(47회)=창원전문대 사회체육학과 조교수. 055-279-5120

제 7 회

金鍾泰=6월30일 침례병원에서 별세

故 金思遠=전 동기회 총무. 7월1일 금정구청에서 장남 결혼

許宗浩=8월6일 모친 별세

김광욱=동기회 총무. 9월30일 오후 2시30분 부산중앙교회 본당에서 차남 요석군 결혼

제 8 회

동기회사무실 이전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9-2 삼영빌딩 3층 305호. 051-468-3460

孔相泰=(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481-9 대림선라이저 2차 202호. 051-742-1193

張赫杓=10월9일 일맥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교육봉사부문 대상 수상 함

孫世一=청계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성지빌딩 1209. 02-713-8545

睦允誠=Blue Moon Motel 경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8. 02-536-2361~3

朴社秉=서울보건대학교수 공학박사. 현대인의 삶과 직업윤리 저서 출판. (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103동1403호. 031-701-4628

趙碩濟=LA망문중 김재철 구무육 박경식 김수룡 동문과 만나 정담을

나눔

洪光秀=한성종합기술 단장. 총신교회 장로. 7월15일 케이블TV 42번 가의 기적에 출연. 호스피스 활동에 관한 대담 가짐

李昌圭=7월15일 방배동 성당에서 딸 결혼

李鳳祥=재미. 7월23일 서울삼성병원에서 모친 별세

鄭仁浩=10월15일 오후 2시10분 올림픽예식장에서 차녀 보경양 결혼

金振煥=재미. 사업차 방한하여 9월 22일 귀국. 312-554-9090

故 河一淸=동문 부인이 8월5일 삼천포에 일청경로한의원 개원. 055-832-4301~2

金德謙=10월14일 오후 1시30분 목 화예식장 4층에서 장남 한수군 결혼

제 9 회

李大圭=9월30일 오후 1시40분 아리랑관광호텔 2층에서 차남결혼

李柱漢=(자택이사)경남 진주시 하대2동 101 하대현대아파트 106동 2506호. 055-757-2046

崔海洙=동아대학교 교육행정 강사로 강의중. (자택)051-327-0894. 017-589-0894

제 10 회

金詰熙=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 아파트 114동2103호. 051-264-5289

崔海萬=경남 김해시 장유면 농협 조합장. 055-338-5608

卞益圭=(주)한보건설 회장.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26 동아빌딩 501호. 051-244-0376~7

제 11 회

趙楊鉉=5월11일 모친 별세

朴昌星=5월12일 코모도호텔에서 장남 결혼

金東基=5월21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장남 결혼

심재동=(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중부동 697-1 양산현대아파트 104동101호. 055-387-1356

李在珍=(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05-31 삼익맨션 203동1106호. 051-523-3451

金斗烈=5월28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녀 결혼

金仁玉=7월2일 별세

강용대=(자택이사)부산시 부산진구 개금 3동 53 주공아파트 215동

제 12 회

동기회는 58년도 졸업앨범 재생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동문이 계시면 동기회(051-243-83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潘昌鎭=전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장. 7월9일 지병으로 별세

林成奎=영남상사 대표. 8월15일 지병으로 별세

孔文=남양산업 대표. (사무실이전)경남 사천읍 선인리 310-2

金鍾一=삼호선박(주) 기관장. 일시 귀국하여 동기회 방문

金準鐵=협성검정(주) 대표이사. 6월28일 중앙동 송미장에서 중·서·영도지역 월례회 때 수고 많았습니다

朴鍾鼎=7월28일 모친 별세

徐茂敏=김해 KAL 유치원 원장. (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433-30. 051-205-6357

徐泳兌=서울 삼사록 대표. 7월29일 부친 별세

宋世文=대대중학교 교감으로 30여년 2세 교육에 수고하시고 8월 명예퇴임

嚴泰燮=동아대학교 교수. 6월29일 부평동 대래한식집에서 강서·사상·사하지역 월례회 때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石=동래고등학교 주임교사로 8월 명예퇴임. 30여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鄭仁泰=삼성중학교 주임교사로 7월 명예퇴임. 수고가 많았고 특히 정서교육(미술 음악)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朱光助=서면중학교 주임교사로 7월 명예퇴임. 수고가 많았고 특히 한국 MRA 부산본부 사무국장으로서 후배들의 도덕문화 교육에 각별히 애정을 담았습니다

車敏道=국제종합기계(주) 부사장으로 승진. 02-2238-9721

제 14 회

宋哉憲=(취임)일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4 유가빌딩 4층. 02-536-8851. 02-533-2146

吳鍾哲=(자택)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6 서초가든 스위트2동1401호. 02-3487-0887

朴永吉=(자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89-5 206호.

趙圭香=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퇴임.

(7면에 계속)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매 이내(명함판 사진 1매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6면에서 계속)

어디서 무엇을

(자택)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96
시범단지 우성 216동1102호. 031-702-8281

張政男=과학기술원 연구정보실 실장. (자택이사)서울시 중구 신당6동 840 현대아파트 1동203호. 02-958-6062

金壽永=(자택이사)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한강 우성아파트 113동1405호

崔洛堂=8월18일 모친 별세

卞熙慶=9월2일 오후 1시 늘봄공원 예식부 4층에서 장녀 결혼

제 15 회

徐正旭=(자택이사)울산시 남구 무거2동 옥현 주공아파트 211동101호. 052-222-3628

許珍錫=(자택이사)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69-5 내리움아파트 101동2603호. 051-809-2976

李基哲=(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906. 055-382-4776

제 16 회

孫龍錫=(취임)울산 보람병원 여성 의학 연구소장 취임. 052-278-0015

鄭然雄=미국 LA에서 사업차 대한. (연락처)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345-6. 051-552-0239. 011-246-2212

李採彦=7월24일 모친 별세

李孟立=(자택이사)부산시 영도구 봉래동2가 112 미광마린타워 102동301호. 051-413-7717

梁敬錫=(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851 달빛마을 부여아파트 202동1801호. 031-967-6140

金政均=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490 동원보라 105동601호. 051-611-1217

盧祥鎰=(개원)청십자의원.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 1291-254. 051-784-4361. (자택)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421-3 (1/3). 051-244-3669

崔英旭=8월19일 서면롯데 3층 크리 스타볼룸에서 장남 결혼

趙明澤=8월20일 황태자예식장 3층에서 장남 결혼

李英一=8월26일 부산호텔 2층에서 차남 결혼

韓利憲=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합리 148-99. 031-774-0676

제 18 회

朴淳正=영남중학교 교감. 051-265-4332

趙陽秀=상지건축 이사. 051-247-0208

張淵植=동진컨테이너(주) 이사. (사무실이전)부산시 사하구 구평. 051-266-8114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千益柱=천경상회 대표. 051-256-9266

崔康登=정공산업 대표. 051-261-2911~2

崔翔惠=청천화원 대표. 051-647-6167

徐富源=파워펀치 119 소화기 부산지사장. 051-203-3736

河斗錫=하나정공 대표. 051-202-0123

黃正男=대동고등학교 교사. 051-292-1694

姜東燮=강동섭소아과의원. (병원이전)부산시 금정구 서동 051-522-9305

禹元鎬=(개업)정화약국. 051-241-0110

李在一=(자택)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명정SK아파트 103동1002호. 051-522-5321

朴貴煥=(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명장2동 동남타워 1107호

金用大=(개원)김용대정형외과의원장. 051-622-0024

朴碩道=이화미술학원 원장. 051-553-1643

姜德隆=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선경아파트 311동1306호. 051-513-4810

金基箴=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360-3. 051-513-2709

제 19 회

黃性珍=변호사 황성진법률사무소. 부산시 서구 부용동1가 66-1 영남(사우나)빌딩 5층. 051-245-8001

제 20 회

黃錫珍=(자택이사)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현대아파트 101동807호. 051-554-2450

金知弘=(자택이사)부산시 동구 수정1동 산29-56 유신아파트 408호. 051-244-4200

洪舜太=대보약국 대표. 8월27일 부친 별세. 02-485-9035

林盛春=김정초등학교 교장. 051-202-6112 (자택)051-266-2260

제 23 회

李成基=(상호변경)서경종합건설
金東旭=(자택이사)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2동503호. 051-256-2513

제 25 회

金南一=부산시교육위원회 부교육감. 051-8600-201. 205

金孝泰=탐마트 안경원 대표. 051-292-4441. 8월8일 모친 별세

沈秀萬=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수. 041-860-2518. 8월23일 모친 별세

金哲錫=동환건설(주) 전무. 051-809-5333

朴日東=김해 대저토건 상무. 055-336-0680

제 26 회

崔義壽=신동해통상 대표. 051-301-8595. 019-504-8595

홍정근=한국중공업 담수사업본부 차장.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055-278-4640

河吉泰=(주)산동 울산현대백화점 매장 OPEN. COFFEE & TEA (사무실이전)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6-28 대구빌딩 101호. 051-635-4822~3. 011-839-2397

實碩洲=송원산업 부장. 051-755-5037. 011-580-5037.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삼성아파트 2동1207호

高圭錫=(전근)제일제당. 경기도 이천 1공장. 031-2293-4000

朴鏞碩=(자택이사)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59-1 그린빌라 102호

權海國=(개업)일미집. 051-804-5254. 808-7103

홍순하=(자택이사)부산시 남구 남천2동 148 삼익타워 6동106호

鄭巨敦=(이전, 상호변경)한사랑약국.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305-14. 051-518-4116

제 27 회

韓尙勳=재경동기회장. 대건불이건축 사무소 소장. 02-733-2334. (사무실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4-11 청원빌딩 3층

尹祉漢=부산주공(주) 경영기획부장. 051-310-6030. 9월4일 부인 별세

趙境濟=경기도청 환경정책과. 9월4

일 심장마비로 별세. (자택)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금성아파트 103동203호. 031-214-3610

李鍾贊=외환은행 부산정관지점장. 051-728-3393. (자택)부산시 남구 대연4동 대우아파트 102동 901호. 051-628-2128

金安石=김해세무소 세원관리과 과장. 055-320-6300

李宇鍾=부산 북구청 지역경제과. 051-309-4473

金敬鍾=서울지법 민사19부 부장판사. 02-530-1529

田 豊=(주)두산 주류 비즈니스그룹 부사장. 02-3398-1604

安鍾澤=서울고검 송무부 검사. 02-530-3204

金龍燮=동국산업(주) 관리총괄부 부장. 051-850-2010.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 115동2502호. 051-702-6854

具龍旭=Los Angeles. CA. (직장) 323-732-1806 (자택)562-404-8650 (휴대폰)562-305-5771

金旻仁=Downey. CA. (직장)213-388-7545 (자택)562-806-6631

金萬龍=Orange. CA. (직장)714-744-6000 (자택)714-998-0226

金聖中=Downey. CA.(직장)213-385-1870 (자택)562-927-2074 (휴대폰)213-422-1097

金容琇=Los Angeles. CA. (직장) 323-734-5000 (자택)310-478-5150

金義哲=Kent. WA (자택)253-630-9314 (휴대폰)213-760-5964

朴聲根=Atlanta. (직장)770-936-0631

朴理達=Vancouver. WA (직장) 360-737-6814 (자택)360-695-9859

朴在遠=OR (직장)503-325-4531 (자택)503-861-1064 (휴대폰)206-618-9291

白一勝=San Jose.CA (직장)408-232-5423

吳宗熙=WA (자택)425-673-9304

李光男=New Jersey (직장)201-229-7059

李承勳=CA (직장)562-633-7400 (자택)562-926-7205 (휴대폰)562-577-7290

李元亨=LA (직장)562-921-7995 (자택)562-809-7326 (휴대폰)562-972-4702

李益柱=Los Angeles. CA. (직장) 213-380-3016 (자택)818-982-5160 (휴대폰)213-530-0749

李鍾旭=Los Angeles. CA. (직장) 213-765-0182 (자택)323-962-9426

李仁哲=New York. (자택)516-829-7072

鄭聖奎=New Jersey (직장)203-625-8135 (자택)203-629-3349

鄭佑相=New Jersey (직장)973-471-4042 (자택)201-944-8118

趙炯善=New Jersey (직장)201-592-8181 (자택)201-307-9701

池興碩=Los Angeles. CA. (직장) 213-381-3239 (자택)818-503-0262 (휴대폰)213-595-4169

車聖柱=LA (자택)909-595-5983 (휴대폰)213-453-8836

崔大榮=LA (직장)562-802-5919 (자택)714-525-0360

趙允健=Buenos Aires (직장)54-11-4542-8754 (자택)54-11-4782-7949 (휴대폰)54-15-5661-4094

金善永=Belgium. (직장)32-13-53-9166 (자택)32-2-784-3685 (휴대폰)32-476-40-4213

李相國=Milano Italy. (직장)39-2-5761-9145 (자택)39-2-9078-5094 (휴대폰)39-333-370-1986

崔炳元=Paris. France (직장)33-1-4312-3747 (자택)33-1-4577-8194 (휴대폰)33-6-0977-0333

제 30 회

徐政爽=서민석세무회계사무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10-5 KBS맞은편 수영세무서 입구. 051-628-1296. 011-858-7766

제 40 회

정원철=동기회 회장. 9월24일 교원 아카데미 17층 동백홀에서 결혼

박양근=GM Korea.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55-22 삼보빌딩 B동1층. 051-621-5918. 011-9310-5918.

2000년도 제26회동기회 임원명단

회장기쟁탈 제25회 기별대항 용마테니스대회 우승을 축하합니다!

총동창회 부회장
강인백

총동창회 이사
김성환
장경재
최 현
박재욱
박복수

동기회 발전위원
강인백
김두천
김상현
김택영
박권병
박상호
박용석
박원세

박장현
박재욱
양준영
이규용
이병욱
전강석
전해룡
조만석

회 장
최 현

부회장
김성환

총 무
박복수

감 사
김태년

26 GOLF
회장 최윤립
총무 김광대

26 테니스
회장 김상현

총무 신재호

26 산악회
회장 김태년
총무 이성복

26 기우회
회장 장종연
총무 권해국

재경회장
김경익

부회장
구영호
김대규
김석태
김재수
김주만
왕효석

이성근
이승무
이철주
정종기
총 무
김민철
강상모
감 사
이성호

지리산 11월 11일~12일·가지산 12월 10일 도전



본부 용마산악회 2차 동년대회가 9월17일 가야산에서 열렸다(상왕봉 정상에서 바라본 칠불봉 정상).

본부 용마산악회

올겨울 산행 계획

9월17일 가야산서

창립 후 두번째 행사

본부동창회 용마산악회는 9월17일 경남 합천 근교 가야산에서 제2차 산행대회(정기)를 개최했다. 이번 산행은 지난 6월11일 '용마산악회' 창립기념 제1회 동창회장기 쟁탈 등산대회(송학산~경남고)에 이어 두번째 행사이다.

한동대산악회장(9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가족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10분 4대의 관광버스편으로 해인사 절골 백운동에 도착했고 등반장비 등을 점검한 후 심원골~성재(중식)~가야산 정상(칠불봉·상왕봉)~토사골 하산~해인사 주차장 코스를 7시간에 걸쳐 주파했다. 이어 해인사관광호텔에서 목욕과 식사를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10분 부산진역에서 출발 직전 조대제동창회장(7회) 인사말과 격려금 전달 후 출발한 일행은 등반 나들목인 백운동에서 한동대산악회장의 인사말과 오기현등반대장(20회)의 산행코스 안내 및 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산행에 돌입했다.

한편 용마산악회는 △11월 11~12일 지리산 노고단~반야봉~불무장~직전마을(피아골)을 통과하는 회장단 산행대회 △12월10일 정기산행으로 경남 가지산대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死闘의 설악 적설등반

김대원 (20회·구덕신우회 회장)

제2일-바늘같은 눈길 극복

6시 기상. 시원한 미역국을 해장국삼아 배부르게 먹고 9시에 출발하여 능선에 오르니 귀청이 저만치 보인다. 조그만 봉들이 굽이 굽이 돌아 있어 보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귀청 오를 길의 매서운 서북풍에 정신없이 올라오니 12시, 1580m의 귀뚜기청봉에 닿는다. 방풍복을 안 입고 오른 것을 후회하는데 김보상회원이 바람결에 볼때기가 날아가 버렸다고 허풍을 떠다. 확 트인 시야에 멀리 남쪽으로 점봉산이 눈에 가득히 들어와 그야말로 겨울 설악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눈들로 곳곳이 덮여진 너덜길을 지나 오후 1시20분경 안부에서 떡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충분히 휴식.

하대용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근간에 산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옛 실력을 발휘한다. 오후 2시40분 출발하여 조금 지나 한계령 갈림길부터 러셀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적설량은 체법 된다.

북 사면에는 쌓인 눈 사이로 용아장성이 가로 누워 있다. 그 뒤로 멀리 보이는 공룡의 등뼈처럼 솟아 있는 암봉은 몸을 열어 주지 않을 듯 완강하다. 저 바늘 같은 길을 넘어 갈 수 있으려나...3시간 남짓 힘겹게 올라 붉게 물든 해넘이를 뒤로 할 즈음 끝칭에 다다른다. 멀리서만 보이던 대청봉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어둑어둑한 숲속 길을 지나 오후 6시40분 드디어 중청산정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등산객이 적어 자리를 푸근하게 자리잡고, 한쪽 옆 식당칸에서 삼겹살 구이와 오기현산행대

장이 준비한 특미의 된장찌개로 주위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해가며 서북풍 완주를 자축하는 축배를 높이 들다.

물값이 금값이라 오늘도 남기태회원이 허드렛물로 쓸 눈을 멀리 가서 또 준비해야 한다. 빨리 후배 기수 와야 저 신세를 면하는 데...

제3일-'죽음의 계곡' 미끄러짐

오전 5시30분 기상하여 8시30분에 대청봉을 향해 출발하니 설피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다. 1708km의 남한 제3봉인 대청봉에 오르니 멀리 운해를 밧 아래 깔고 금강산 여러 봉들이 위어 놓은 듯 우뚝 솟아 있는 것

칼바람 속 3시간 험악거리며 끝칭에 올라 저기 한쪽의 동양화 금강산이 선명히 나타나 리면·삼겹살·튀김찌개·소주 '추억의 단골메뉴'

이 그야말로 한 쪽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 모두 설악산에서 이렇게 선명한 금강산을 볼 수 있었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의 계곡 옆 능선 길을 신나게 미끄러짐질로 내려가 10시30분 회운각산장에 도착. 여기서 그간 동이난 소주와 안주거리를 보충하고 중식용 물도 덩으로 넣다.

도대체 무거운 배낭은 언제쯤 가벼워 질런지 기약이 없다. 가파른 무너미고개를 시작으로 공룡의 등줄기를 타는데 가파른 고갯길에 눈은 왜 이다지도 많은지, 사진작가인 박상현 특별회원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걸어간다. 어렵사리 신성봉을 지나 오목하니 바람 잦은 골에서 점심을 때우고 뺨쪽하니 솟아 오른 1275봉을 향한다.

목이 아파 쳐다보기도 힘든 얼어붙은 암릉 길을 험악거리며 겨우 넘어오니 오후 3시40분. 이젠 천화대로부터 불어오는 칼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을 엉금거리며 내려서서 나한봉을 오르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급한 오르막길이다. 그야말로 2단 옆차기를 맞은 듯 얼얼한 게 가쁜 숨소리들만 들린



등반대원들이 산행 마지막날 마동령에서 침낭을 준비하고 있다.

되어서 출발. 밤새 길이 얼어 붙어 아이젠을 처음부터 착용하고 세존봉을 향한다. 장군봉 가는 하산길에 천화대 범봉과 1275봉이 하얗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비로워 굳들이 발길을 멈춘다.

금강굴, 비선대 가는 지루한 돌 계단길에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 붓고 오후 1시경 설악동 산악인의 집에 배낭을 벗으니 뿌듯한 마음이 쩡하게 가슴에 와 닿으며 종주가 끝이 난다.

웃음 넘친 팀워크로 산행 성공

이번 산행은 일정 관계상 12선녀탕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서북주능과 공룡릉을 한꺼번에 완주한 것이 가장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 적설 종주에 9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참가했고 게다가 평균연령이 50에 달하는 중늙은이(?)들이 안전하게 완주한 것은 오기현산행대장의 산행 리더와 대원들이 평소애 다져온 팀워크의 결과로 생각된다.

무거운 아령 장비에서 불평없이 웃어지며 산행한 후배들에게 뜨거운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똥구두를 신고 뛰어 다니던 그 정신과 기백으로 구덕산우회는 경교인의 기상을 끊임 없이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끝)

회장기쟁탈 기별야구대회 대장정 돌입

모이자! 뛰자! 응원하자!

용호상박... 파란의 열전

결승전 10월 21일

주최: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